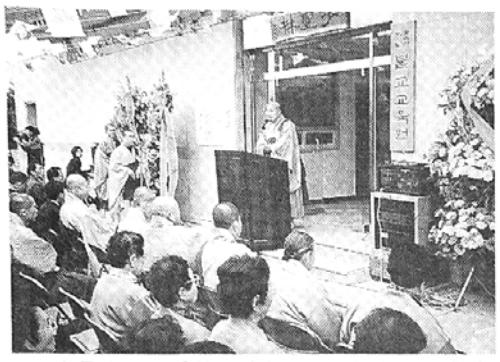


◇불국사 불교교육원이 지난 11월 29일 새건물로 확장 이전했다.

불국사 '불교교육원' 확장 개원

건강강좌·컴퓨터실 등 갖춰…상담활동도

불국사부설 불교교육원(경주시 황남동, 원장 서형)이 지난달 29일 새건물로 확장이전, 경주지역불자들을 위한 새교육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됐다.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백40평 규모의 새교육원은 법당을 비롯 회의실과 6개의 대소강의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미니무대를 갖춘 합창단연습실과 1백석규모의 식당도 갖추고 있다.

특히 20여명이 동시참여할 수 있는 도자기실습실과 10여대의 컴퓨터가 비치된 컴퓨터실습실도 있어 취미활동에서 부터 참단교육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同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교리강좌를 중심으로 한 불교교양대학 △사군자 민화및 불화 다도 서예교실등의 문화교양강좌 △수지침 요가 한방의학을 가르치는 건강교육강좌 △어학강좌 등이 개설됐다.

또 실천사업으로 무의탁노인 무료공양, 심장병어린이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자비의 전화(0561-745-3737)도 개설한다. 〈경주=이윤호 기자〉

'기아도움기구' '한국JTS' '이웃을 돕는…' '우리는 선우'

"한국불교 동남아 문맹퇴치 앞장"

인도·네팔 등지에 학교설립·무료급식·장학금 지원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가 내년 3월 네팔 카투만두에 현지법인을 설립, 초등학교를 짓기로 하는 등 동남아 불교국가의 문맹퇴치 및 결식어린이 구호사업이 불교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네팔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재일 회장은 "문맹퇴치와 결식어린이 점심제공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기아도움기구가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곳은 네팔 망갈루 교외.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나 10Km 이상을 걸어 등교해야 한다. 망갈루초등학교는 3백여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으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

김재일회장은 내년 3월 재방문해 현지의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UNHCR(유엔국제난민대책기구) 네팔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JTS(대표 법륜스님)는 인도의 최하층 빈민들이 살고 있는 둥게스리에 수자타아카데미를 설립, 4백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아·질병·아동구제 불교단체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회장 송산스님.진중앙승가대학장)은 수자타 아카데미에 무료급식소를 설치, 지난 11월부터 매일 4백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또 네팔 카투만두에 기술교육과 불교포교를 위한 불교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다. 내년 5월 기공을 목표로 1억5천만원의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도 준비중이다.

이에앞서 우리는선우(이사장 박광서)는 산하단체인 국제승보공경선우회(회장 남지심)를 중심으로 지난 94년부터 캄보디아와 미얀마 승단에 승려교육을 위한 후원금을 매월 1천달러씩 후원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불교기아난민돕기기구 김재일 회장이 네팔의 티벳난민촌 초등학교 롬상 탐캐교장에게 1천불의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돈 2천5백원이면 어린이 1명에게 한달치의 점심을 제공할 수 있다.

"홍보·채널전문화 부족하다"

보리방송모니터회 'BBS 개선방안' 설문

신행프로 '인기'…어린이·청소년 청취율 저조

다가오는 뉴미디어시대에 대비해 라디오매체인 불교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청취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채널의 전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보리방송모니터회가 불자 3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불교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개선방안등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수의 불자들이 불교방송의 경전공부와 교리공부프로그램, 그리고 큰·스님 초청법문 등 불교방송만이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의 심화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일반불자층이 자비의 전화, 교리강좌 등을 신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꼽았고, 청년불자들의 경우는 살며생각하며, 참선교리 경전공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수가 불교방송에 대해 잘모르고 있거나 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와 청소년불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홍보와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17일 부터 25일까지 조계사, 봉은사, 석왕사, 흥원사등에서 실시돼 일반불자 308명과 청년불자 81명이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불교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화를 통한 질적향상과 기술의 향상, 또 이를 통한 적극적인 경영으로 양질의 음질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 청취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참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불교방송의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작진, 진행자의 전문화, 지역프로그램의 강화, 청취자의 참여확대, 편성 홍보전략 강화 등이 선행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은〉

천태불교문화원 12일 개원

경전번역·학술연구·유적발굴등 사업전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천태불교문화원개원식및 '천태사상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기념강연회를 개최한다.

천태교학의 연구와 천태사상에 입각한 현대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키위해 설립하는 천태불교문화원은 △천태불교원전및 불교경전의 수집및 한글번역 △천태학술연구 △국내및 중국등 해외 천태유적지 발굴조사 △천태불교의 응용과 사회화작업추진 △천태문화연구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 이어 '천태사상과 현대사회'를 주제로한 기념강연회에서는 중국불교문화연구소 부소장 왕신박사, 일본천태학회장 오쿠보 료순박사, 동국대 이영자 천태학 교수의 강연이 발표될 예정이다.

종단소식

진언종 5대종정에 이욱자 주교 추대

진언종은 지난 11월 22일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제 5대 종정에 이욱자 주교를 추대했다.

또 진언종은 지난 2일 종리원장 직무대리 손금광주교 종회의장 이법륜주교 감사원장 현해공주교 호법원장 변국복주교 재무부장 손종밀주교등 종단간부를 선임했다.

백진결사회 위령재

28일 경찰종합학교서

태고종 백진결사회(회장 일로)는 오는 28일 경찰종합학교에서 순직경찰관과 교내사격장 건물공사중 사망한 인부들의 넋을 위로하고 고혼을 천도하는 위령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백진결사회는 학교 근무자들과 학생들에게 불교예술공연도 펼친다. 이번 공연에는 법고 범패 찬불가 영산재 등이 시현될 예정이다.

진각종 12일 종의회 종헌종법 개정논의

진각종(통리원장 락해)은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헌종법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돌입한다. 종단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진각종은 오는 12일 종의회를 개최하고 △현시대에 맞는 종단부서개편 △교역자 대우 △각종 장학금제도 개선등이 걸려있는 종헌종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성스님 ◇우담스님 ◇백운스님 ◇혜공스님

총무—지성스님 교무—우담스님
사회—백운스님 재무—혜공스님

태고종 신임 4부장 임명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지난 6일 총무부장을 비롯한 신임 4부장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부장은 총무부장 지성스님(승가사주지 현 총무원 규정부장) 교무부장 우담스님(선봉암주지 전 교무사회부장) 사회부장 백운스님(석왕사주지 강원불교대학장) 재무부장 혜공스님(대구 관암사주지 전 재무부장) 이다.

불교TV 고승대덕 초청 선서화전

16일 부산서 개막…1월 23일부터 서울서

불교TV는 발전기금마련을 위한 불자주식공모 기간에 발맞춰 고승대덕 초청 선서화전을 개최한다.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서 개막될 이번 전시회는 우선 오는 16일 오후 2시 부산국제신문사 전시실에서 개막을 시작으로 22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전시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고승대덕스님들의 선서화는 물론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할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선보일 이번 전시회는 한국불교 사상의 진수를 선보일 격조 높은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월하종정스님의 서화를 비롯해 석주스님, 일타스님, 운제스님 등 원로스님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불교TV 발전기금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에는 불교TV전무 정우스님이 사진과 서화등 3백여점의 개인소장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목탁소리

발묶인 불교영상 세계화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이젠 불교TV도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해외수출을 고려하는 한 차원 높은 안목으로 제작에 임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5일~7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 방송프로그램 견본시장인 'MIP(International Film & Program Market for TV,Video, Cable & Satellite) 아시아 96'에는 우리나라 케이블TV 방송의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이 개국 2년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프로그램 시장 공략을 위한 공동전선에 나섰다. 큐채널, 현대방송, 등을 비롯 10개사가 '케이블 TV 코리아'라는 공동부스를 설치하고 그 동안 제작해 온 프로그램을 전시, 판매할 계획으로 이 대회에 참가했다.

당초 불교TV도 이 대회 참가를 위해 '고려대장경' 2편, '한국의 명찰' 5편, '영상포엠 내원사' 1편, '통도사예불' 1편, '출가 새로운 탄생' 1편등 총 10편의 출품작을 결정했었으나 영문자막, 영문브로셔, 더빙 등에 필요한 재정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참가를 취소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MIP 아시아 참가는 프로그램 판매와 수출면에서도 필요하지만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지난 국감자료에 의하면 불교TV는 자체제작비율이 81.8%로 타종교방송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같은 자체제작비율이 수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채 지금껏 미주지역에 몇몇 프로만이 저단가에 수출된 바 있다.

제4차 주식공모에 돌입해있는 불교TV의 현 사정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교TV가 보다 탄탄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과 수출로 세계속에 한국불교의 영상탑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식공모에 동참, 함께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불교TV가 불교영상포교사로 그 생명력을 발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방송을 통한 불교문화의 계승보전과 불교사회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 4회 보리방송 문화상 수상작이 결정됐다.

먼저 일반TV부문 최우수상에 대구KBS의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연출 김덕재)가 우수상에는 대구MBC가 제작한 '팔공산 백홍암'(연출 공재성)이 선정됐다.

불교방송부문에서는 '자비의 전화'(연출 전승환)가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부산불교방송의 로컬프로그램 '물같이 바람같이'(연출 진영조)가 선정됐다.

일반 '대륙으로 간…'

불교 '자비의 전화'

보리방송문화상 최우수상

불교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은 보리방송모니터회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서울지역 주요 5개 사찰과 신행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수상작을 결정했다.

사단법인 불국토가 주최하고 보리방송모니터회와 보리방송문화상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다.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2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광주 삼복서점 :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제일서림: 424-0801, 대전문경서적: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림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홍지서림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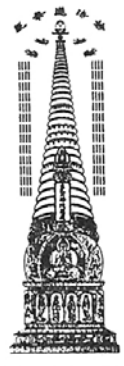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악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성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돌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방생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합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